

보도 일시	2022. 9. 2.(금) 16:00	배포 일시	2022. 9. 2.(금) 16:00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시각예술디자인과	책임자	과장 배양희 (044-203-2751)
		담당자	사무관 최혜연 (02-3701-9894)

미술에 빠진 대한민국, 대한민국에 빠진 세계

- 문체부 장관, '키아프'와 '프리즈 서울'에서 한국화랑협회장과 '프리즈' 최고경영자 만나 한국미술 해외 진출 등 논의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2022 미술주간(9. 1.~11.)'이 열린 가운데 9월 2일(금), 국내 최대 미술장터(아트페어) '키아프'와 세계 주요 미술장터(아트페어) '프리즈 서울'을 방문해 행사장을 둘러보고 '키아프' 운영위원장인 황달성 한국화랑협회장과 '프리즈' 운영위원장인 사이먼 폭스(Simon Fox)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한국미술의 해외 진출 등을 논의했다.

세계 주요 미술장터 '프리즈',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최

164개 화랑이 참여한 '키아프'와 110여 개 화랑이 참여한 '프리즈 서울'은 9월 2일(금), 코엑스에서 동시에 개막했다. 특히 국민이 일상 속에서 미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한 '2022 미술주간'에 대규모 미술장터(아트페어) 2곳이 열려 올가을 더욱 풍성한 미술 향유 환경이 조성됐다. 올해로 21번째를 맞이한 '키아프'는 9월 6일(화)까지, '프리즈 서울'은 9월 5일(월)까지 관람객들과 만난다. 런던과 뉴욕, 엘에이(LA) 등에서 개최하고 있는 세계 유수 미술장터(아트페어) '프리즈'가 아시아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키아프'와 '프리즈 서울'의 공동 개최로 전 세계 600억 달러 규모의 미술시장 속 한국 미술시장의 비중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국내 미술시장의 규모는 약 9,157억 원으로 예측돼 2020년 3,277억 원 대비 179%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최근 박서보 작가, 박대성 작가, 이우환 작가 등 한국 작가에 대한 해외 관심이 높은 가운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우리 국민은 물론 한국을 방문한 해외 미술 애호가들이 한국미술의 매력에 빠져들 것으로 기대된다.

박보균 장관은 황달성 회장, 사이먼 폭스 최고경영자와 함께 김구림, 이건용, 박현기, 서도호 등 한국 우수 작가의 작품을 관람했다. 또한 최근 뉴욕에서 백남준 작가의 전시를 진행한 가고시안 갤러리(Gagosian Gallery), 이번 행사에 피카소, 자코메티, 마티스, 몬드리안 등 거장의 작품을 출품한 아쿠아벨라 갤러리스(Acquavella Galleries)도 방문했다.

아울러 박보균 장관은 황달성 회장, 사이먼 폭스 최고경영자와의 간담회를 열고 한국미술 환경과 성장 등을 논의하고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박보균 장관은 “‘키아프’와 ‘프리즈’의 공동 입장권 운영을 계기로 국내외 미술 애호와 미술전문가가 한국에 모여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한국 작가와 작품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예정

